



‘화광’ CTP판재의 국내 독점 총판인 PPK 판재 등 최고 서비스 제공 계획

(주)피피케이(Printing Plate Korea)는 중국 판재 ‘화광’ 브랜드의 CTP판 국내 독점 수입/판매 업체이다. ‘화광’ 브랜드 제품은 중국 업계 유일의 국영기업체인 ‘력키그룹 제2필름공장’에서 생산되는 판재의 브랜드명이며 중국내 판재 점유율 1위이자 많은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는 국제적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화광의 서멀 CTP 판은 모든 CTP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다. PPK측은 화광브랜드의 CTP판, PS판 등의 다양한 판재를 고객들이 원하는 모든 사이즈로 생산 및 공급을 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도 적극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인쇄 기자재 제공에 비전

PPK는 현재 인쇄업계가 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 인쇄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각 분야에 있어 더욱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의 품질향상 노력과 기술력의 발전은 고객들에게 한층 더 세련된 인쇄문화를 선보이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즉, 모든 인쇄분야에 어느 한 곳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기에 PPK는 중국의 국영기업체인 렉키그룹의 브랜드 ‘화광’과 함께 국내 시장에 서멀CTP 판재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 종류와 범위를 더욱 넓혀 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현재 화광의 서멀CTP 판재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기자

재 중 한 분야임은 분명할 뿐 더러 인쇄업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총판에 안주 않고 완벽한 인쇄물 생산에 기여

화광의 서멀 CTP판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고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철저한 사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PPK는 자사의 CTP판재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독점 판매에만 안주하기에는 시시각각 빠르게 돌아가는 국제시장에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많은 경쟁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제품공급에 대한 수급과 균형 잡힌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의 안정된 시장을 지키면서 기술적으로도 고객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중국의 렉키그룹소재의 연구진과 긴밀한 협조하여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신속히 보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발매될 신제품에 대해서도 고객들에게 제품의 희소성을 알리고 다양화된 솔루션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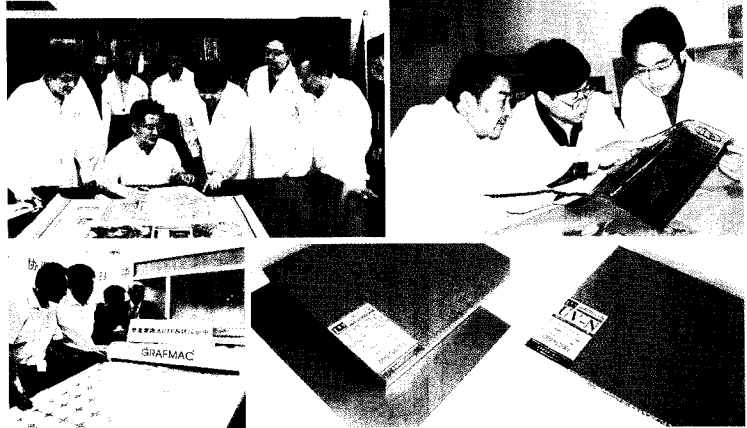
PPK는 인쇄업은 현실과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산업이 아니라 여러 분야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아가면서 많은 인력과 노력이 투입되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문화산업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다. 서로서로 상생의 길로 갈 때에 더욱 더 인쇄문화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내 인쇄환경 맞는 제품 공급에 최선

PPK가 화광과 CTP 판재 국내 총판계약을 하게 된 계기와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PPK는 지난 5월 14일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과 고급 상업인쇄용 서멀 CTP판재 화광 TP-2와 PPVS 형 바이올렛 CTP판재의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판 계약은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난양에 있는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을 방문해 화광의 7번째 CTP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의 텡팡치엔 공장장과 공장장 보좌역 장 거부장, 왕웨이신 제너럴 매니저, 상홍차오 아시아 영업담당과 함께 향후 한국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내 인쇄판재연구실

국내 총판 계약의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시장은 여러 개의 중국 판재 브랜드가 가격 위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품질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화광 판재는 국내시장 도입 초기와는 달리 안정적인 품질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PPK는 여러 딜러 공급선을 바탕으로 한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망을 충분히 확보해서 화광 CTP판재가 한국시장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총판 계약으로 그 동안 고객들의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공급의 안정성이 떨어졌으나 이제는 고객들이 마음 놓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정성을 확보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무엇보다 국내의 화광판 수입, 판매량의 극대화를 통해 고객들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상생의 시대에 걸맞은 인식을 갖고 고객들의 경쟁력이 우리의 경쟁력을 명심하고 고객께 힘이 되는 PPK가 될 것입니다. 현재도 좋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품질을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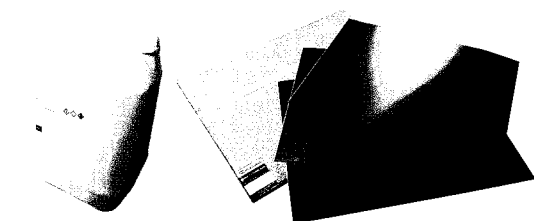
이번 총판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며 여러 고객들의 의견을 취합, 분석하여 화광 본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최고의 품질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당장의 과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출력 및 인쇄관련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PPK는 판재뿐 아니라, 현상액, 잉크, 종이 등 인쇄분야에서 고객께 꼭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최고의 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 계획과 실적은 어떤가요.

국내 시장에서 화광 브랜드의 인지도를 좀 더 높이고 고객들이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9월에 열린 KIPES 2010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의 제고라는 목적은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 연구소에서 개발 중에 있는 무현상 판재의 테스트와 연구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UV판재의 경우는 올해 안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화광 서멀 CTP 전용현상액 PR10